

김수영 시에 나타난 어휘 연구*

전 은 진(한양대학교)

< 차 례 >

- I. 서론
- II. 김수영 시의 품사별 어휘 분포
- III. 김수영 시의 주요 어휘 '나'의 네트워크
- IV. 결론

I. 서론

이 연구는 김수영 시에 나타난 어휘를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김수영은 6.25, 4.19 등 현대사의 중요한 시기를 몸소 체험하고, 이를 시로 표현한 대표적인 시인이다. 또한 김수영의 시는 모더니즘, 참여 문학 등 여러 문학 논쟁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어 문학사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4S1A5A8019331).

김수영은 1950년에 전쟁을 겪으며 북한군에 징집되어 포로가 되었다가 석방되고, 1959년에 그동안의 작품을 모아 『달나라의 장난』을 간행하였다. 1960년대에 4.19와 5.16을 겪으며 현실에 대한 의식과 관심을 시로 형상화하였다. 이처럼 김수영은 사회의 억압과 좌절 속에서도 현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시로 표현한 1960년대 대표 시인으로, 1970년대는 물론 1980년대까지 강력한 영향을 미친 시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김수영의 시는 일상적인 어투로 비시적인 시어들을 사용하여 산문 형식으로 서술하고 있어서, 시어를 통해 작가의 삶이나 의식에 보다 가까이 접근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현대 문학사를 대표하는 시인이며 작품 속에 자신의 삶과 현실에 대한 적극적 관심을 드러내고 있는 김수영의 시를 어휘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김수영의 시 전체를 책으로 엮은 『김수영 전집-시』(민음사, 2013)에 수록된 시 176편을 대상으로 한다.¹⁾

이 연구는 김수영 시를 형태 분석하여 전체 어휘를 품사별로 분석하였다. 또한 어휘들 간의 관계성을 고찰하기 위하여, 어휘의 연결 관계를 시각적으로 파악하는 데 효과적인 네트워크를 분석해 보았다. 어휘 분석은 글잡이, 울트라에디터, 엑셀, 파이엑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이루어졌다.²⁾

-
- 1) 『김수영 전집-시』(민음사, 2013)에 수록된 시는 총 176편으로, 1940년대에 쓰인 시가 9편, 1950년대에 쓰인 시가 70편, 1960년대에 쓰인 시가 97편이다.
 - 2) 계량 언어학적 측면에서 문학 언어에 접근한 연구는 조창규(2002), 김병선(2007), 김철준·임형재(2009), 문한별·김일환(2011), 조성문(2012) 등이 있다. 조창규(2002)에서는 소월과 영랑의 시를 분석하여, 소월 시가 영랑 시보다 더 부드럽고 매끄러운 느낌을 줄 수 있는 자모로 구성되어 있음을 밝혔다. 김병선(2007)에서는 1923년부터 1950년 사이에 출판된 한국 현대시 창작 시집에 수록된 시 작품을 대상으로 시어의 빈도를 산출하여 이를 사전 형식으로 기술하였다. 김철준·임형재(2009)에서는 이용악의 시 132수를 분석 대상으로 하여 시어들을 계량 언어학적으로 분석하였다. 문한별·김일환(2011)에서는 김남천 소설에 나타난 주요 어휘들의 사용 양상을 계량적으로 밝히고 그 결과를 토대로 김남천 소설의 시기별 변모 양상을 살펴보았다. 조성문(2012)에서는 이상 시 56편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음절 구조를 고찰하였다.

II. 김수영 시의 품사별 어휘 분포

이 장에서는 김수영 시에 나타난 어휘를 품사별로 분석하여 고빈도 형태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어휘의 수(type)와 어휘의 사용 빈도(token)를 모두 분석하였으며, 고빈도 어휘를 중심으로 어휘 목록을 제시하였다.

김수영 시에 나타난 어휘의 수는 총 5,328개였다. 체언은 3,231개(60.64%), 용언은 1,590개(29.84%), 수식언은 373개(7.00%), 관계언은 103개(1.93%), 독립언은 31개(0.58%)였다.

시어 가운데에는 작가의 의도에 따라 시에 자주 출현하는 고빈도 어휘들이 있다. 따라서 김수영 시에 나타난 고빈도 어휘를 살펴보기 위하여 사용 빈도도 품사별로 산출해 보았다.

김수영 시에 나타난 어휘의 총 사용 빈도는 32,554개였다. 체언이 12,248개(37.62%), 관계언이 9,776개(30.03%), 용언이 8,331개(25.59%), 수식언이 2,110개(6.48%), 독립언이 89개(0.27%) 출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결과를 토대로 각 품사별 어휘 분포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체언의 어휘 분포

체언의 어휘 수는 전체 어휘의 60.64%의 비율을 보였다. 즉, 다른 품사들과 비교하여 다양한 어휘들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사용 빈도에서는 체언 이외에 다른 품사들의 사용률도 높아 체언의 사용률은 37.62%를 나타내었다.

체언에 속한 어휘들은 명사, 대명사, 수사로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명사는 다시 일반명사, 고유명사, 의존명사로 세분하여 분석하였다. 체언에 속하는 어휘 가운데 고빈도 50순위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³⁾

3) 시의 형태는 시인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아, 이 연구에서는 시에 나타난 형태

<표 1> 고빈도 체언 목록

순위	명사						대명사		수사	
	일반명사		고유명사		의존명사					
	형태	빈도	형태	빈도	형태	빈도	형태	빈도	형태	빈도
1	사람	114	일본	13	것	512	나	612	하나	33
2	일	96	대한민국	11	수	84	너	238	둘	5
3	때	96	서울	8	놈	52	그	133	셋	3
4	소리	89	제임스펴	8	줄	42	우리	117	열	2
5	위	81	리	7	때문	41	내	116	넷	1
6	눈	75	원효	7	원	26	그것	72	둘째	1
7	말	68	이북	7	번	24	이것	54	마흔여덟	1
8	꽃	62	4.19	7	년	23	무엇	42	만	1
9	시간	62	아리조나	6	듯	23	누구	28	백	1
10	오늘	62	38선	5	월	17	그놈	26	사십	1
11	마음	61	원효대사	5	일	13	여기	26	삼십	1
12	속	61	제니	5	살	13	그대	24	억	1
13	날	60	VOGUE	4	잔	10	어디	23	억만	1
14	집	59	금성	4	개	8	당신	21	육십	1
15	얼굴	56	만주	4	곳	8	네	17		
16	돈	53	명수	4	데	8	너	15		
17	시	51	불란서	4	뿐	7	자기	11		
18	생활	50	엘비	4	바람	5	아무	9		
19	방	49	미	3	지	5	저것	8		
20	사랑	47	민주당	3	자	4	거기	7		
21	전	45	소련	3	달	4	너희	7		
22	밤	44	순자	3	대로	4	이놈	7		
23	적	43	월남	3	만	4	그녀	6		
24	지금	42	이성망	3	만치	4	언제	6		
25	몸	41	갯님	3	분	4	이	5		
26	바람	40	미국	3	층	4	저	5		
27	하늘	39	6.25	3	리	3	저놈	5		
28	머리	37	1.4후퇴	2	마당	3	그네	3		
29	친구	35	8.15	2	만큼	3	저기	3		
30	술	34	거제도	2	발	3	저이	3		
31	어제	33	김영길	2	배	3	뭐	2		
32	여자	33	나가타켄지로	2	시	3	여러분	2		
33	안	32	대구	2	채	3	요놈	2		
34	자유	32	만용	2	터	3	그년	1		
35	사이	31	매리	2	환	3	남	1		
36	시인	31	부산	2	개국	2	어드메	1		

(이형태, 비문법적 형태 등도 포함)를 그대로 분석하였다.

37	혁명	31	블레이크	2	날	2	이곳	1		
38	길	30	서울역	2	명	2	저희	1		
39	사진	30	아메리카	2	쌈	2	제	1		
40	거리	29	아시아	2	시간	2				
41	물	29	아프리카	2	장	2				
42	설움	29	잉클샘	2	중	2				
43	등나무	27	에어리어	2	치	2				
44	불	27	엔카운터	2	칸	2				
45	여편네	27	이태백	2	툼	2				
46	세상	26	자유당	2	인	1				
47	마지막	24	조선	2	개월	1				
48	모양	24	쌤보	2	겹	1				
49	앞	24	평안도	2	군	1				
50	죽음	24	플레이저	2	등	1				

명사는 총 10,533개가 사용되었으며, 그중에 일반명사가 9,147개, 고유명사가 362개, 의존명사가 1,024개였다. 대명사는 1,662개, 수사는 53개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명사 가운데 고빈도 일반명사는 ‘사람, 일, 때, 소리, 위, 눈, 말, 꽃, 시간, 오늘, 마음, 속, 날, 집, 얼굴, 돈, 시, 생활, 방, 사랑, 전, 밤, 적, 지금, 몸, 바람, 하늘, 머리, 친구, 술’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고빈도 명사들을 살펴보면, 구체적인 현실을 나타내는 명사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특히 ‘사람’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사람’과 관련된 ‘눈, 얼굴, 몸, 머리’ 등의 신체도 고빈도로 나타났다. 그 밖에도 ‘가슴, 입, 손, 발, 육체, 배, 귀, 팔’ 등이 다양하게 등장한다. 특히 ‘눈, 얼굴’은 신체와 관련된 김수영의 시어 중에서 많은 빈도수를 차지하는 시어이자 그의 시에서 꾸준히 등장하는 시어이다.⁴⁾ 김수영의 초기 시에서는 신체가 ‘나의 눈을 밝게 한다, 나의 아버지의 얼굴처럼 자신이나 가족 또는 지인을 중심으로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러다가 ‘얼굴은 분간할 수도 없는데, 눈이 뒤집힌 사람들, 나의 못 보는 눈을처럼 모호한 신체, 보이지 않는 신체로

4) 김수영 시의 ‘얼굴’은 시인의 자아가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바로 시인이 추구하는 시의 모습을 구현했다(김종훈 2012: 89-90).

그려진다. 구체적인 대상의 영역을 벗어난 신체, 지각할 수 없는 신체를 통해 시인의 불안한 내면 의식을 엿볼 수 있다. 시인과 관련된 ‘친구, 여자, 시인, 여편네’ 등의 대상도 고빈도로 나타났다. ‘집, 방, 길, 거리’ 등의 장소와 관련된 어휘도 다양하게 출현했다.⁵⁾

다음으로 고유명사 목록을 살펴보면, ‘일본, 대한민국, 서울, 제임스펄리, 원호, 이북, 4.19, 아리조나, 38선, 원호대사, 제니, VOGUE, 금성, 만주, 명수, 불란서, 엘비, 미, 민주당, 소련, 순자, 월남, 이성망, 잿님, 미국, 6.25, 1.4후퇴, 8.15, 거제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고유명사 중에 ‘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등의 대륙, ‘대한민국, 일본, 불란서, 소련, 미국, 조선’ 등의 국가, ‘서울, 이북, 만주, 대구, 부산, 거제도, 평안도’ 등의 지역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인물 관련 어휘는 ‘제임스펄리, 리, 원호, 아리조나, 원호대사, 김영길, 나가타켄지로, 제니, 순자, 명수, 엘비, 메리, 이성망’ 등이 사용되었다. ‘민주당, 자유당, 38선, 4.19, 1.4후퇴, 6.25, 8.15’ 등이 다양하게 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정치나 역사와 관련된 시들이 적극적으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의존명사는 ‘것, 수, 놈, 줄, 때문, 원, 번, 년, 듯, 월, 일, 살, 잔, 개, 곳, 데, 뿐, 바람, 지, 자, 달, 대로, 만, 만치, 분, 층, 리, 마당, 만큼, 발’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대명사, 수사를 살펴보기로 한다. 대명사 사용 빈도를 살펴보면, ‘나, 너, 그, 우리, 내, 그것, 이것, 무엇, 누구, 그놈, 여기, 그대, 어디, 당신, 네, 니, 자기, 아무, 저것, 거기, 너희, 이놈, 그녀, 언제, 이, 저, 저놈, 그네, 저기, 저야’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명사는 특히 인칭 대

5) 김수영 시에서 나타난 공간의 개념은 안정되고 따뜻한 곳과 거리가 있다. 방과 집은 갈등의 공간이며 위기의 장소이다. 사랑을 통해 아늑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집에는 김수영 스스로가 자신에게 보내는 감시의 시선과 처벌이 존재한다. 이러한 방과 집의 이중적 구조는 그 이전의 문학에서 보이는 집·고향 상실의식과 존재론적 불안의식과는 분명히 다르다. 그것은 사회적 심리 현상으로 이해해야 한다. 자신까지도 포함해 세상과 싸우려는 김수영의 비판의식이 여기에 숨어 있다(여태천 2004: 382-384).

명사들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었는데, 1인칭 대명사는 ‘나, 내’, 2인칭 대명사는 ‘너, 그대, 당신, 네, 너희’, 3인칭 대명사는 ‘그, 그녀, 그네’ 등이 사용되었다. ‘그놈, 이놈, 저놈, 요놈, 그난’ 등의 비속한 대명사도 다양하게 사용되었는데, 이러한 표현은 시적 화자와 갈등 구도에 있는 대상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명사 ‘나’는 사용 빈도가 612개로, 2순위에 있는 ‘너’가 238개인 점과 대비하여 월등히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김수영의 시가 고백적 성향과 자기 성찰적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김수영 시의 의미적 특성이 시의 주체를 결정하는 인칭 대명사의 사용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나타낸다.⁶⁾

수사에서는, ‘하나’가 다른 수사에 비해 월등히 많이 쓰였음을 알 수 있다. ‘하나’를 통해 유일함, 간절함을 드러내고 있다. 그다음으로 ‘둘, 셋, 열, 넷, 둘째, 마흔여덟, 만, 백, 사십, 삼십, 억, 억만, 육십’이 사용되었다. 기수사 표현이 높은 빈도를 보였고, 한자어식 수사 표현은 큰 수를 지칭할 때 사용되었다. 서수사는 ‘둘째’가 나타났다.

2. 용언의 어휘 분포

용언의 어휘 수는 총 1,590개가 나타났으며, 전체 어휘 수의 29.84%의 분포를 보였다. 체언 다음으로 어휘 수가 다양하게 쓰였다. 사용 빈도에 있어서는 체언(12,248개, 37.62%)과 관계언(9,776개, 30.03%) 다음으로 높은 분포를 보였는데, 총 8,331개가 사용되어 25.59%의 비율을 나타냈다.

용언은 동사, 형용사, 보조용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용언에 속하

6) ‘나와 너’가 사용된 작품의 주요 서법은 주로 명령의 의문이었다. 화자 ‘나와 대상 너’는 명령하는 자와 명령을 수행하는 자의 역할로 구분되는 경우가 많다. 다른 경우로는 ‘나의 물음을 듣는 청자이거나 나의 깨달음을 유발시키는 대상이 되기도 한다. ‘나와 너’는 대결하는 구도를 넘어서서, ‘나와 너’의 대립을 무화시키고 복수 주체로의 확장을 불러 온다(장석원 2006: 233-235).

는 품사 분포를 분석한 결과를 빈도순으로 50순위까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고빈도 용언 목록

순위	동사		형용사		보조용언	
	형태	빈도	형태	빈도	형태	빈도
1	하다	369	없다	172	않다	225
2	되다	194	아니다	164	있다	224
3	있다	189	있다	94	지다	110
4	보다	137	같다	87	하다	71
5	가다	136	좋다	46	가다	69
6	오다	100	그렇다	35	보다	68
7	알다	80	무섭다	24	주다	49
8	모르다	72	무수하다	24	말다	46
9	생각하다	67	어리다	24	오다	31
10	위하다	65	많다	22	놓다	28
11	쓰다	62	어떻다	21	못하다	23
12	나오다	53	길다	20	버리다	18
13	주다	52	이렇다	20	되다	16
14	살다	51	푸르다	19	싫다	10
15	앉다	49	더럽다	18	두다	8
16	나다	45	아프다	17	나가다	4
17	보이다	44	어렵다	17	만하다	4
18	울리다	39	짧다	15	빠지다	4
19	떨어지다	37	가깝다	14	가지다	3
20	서다	37	노랗다	14	나다	3
21	찾다	37	싫다	14	달다	3
22	죽다	36	이러하다	14	드리다	3
23	마시다	33	다르다	13	듯하다	3
24	돌다	32	멀다	13	보이다	3
25	잊어버리다	31	무겁다	13	아니하다	2
26	부르다	30	시원하다	13	들다	1
27	않다	30	아름답다	13	뻥하다	1
28	웃다	30	조용하다	13	죽다	1
29	대하다	29	겁다	12	척하다	1
30	울다	29	그리하다	12		
31	들다	28	편편하다	12		
32	말하다	28	필요하다	12		
33	취하다	27	희다	12		
34	먹다	26	불쌍하다	11		
35	받다	26	서럽다	11		

36	듣다	25	어둡다	11		
37	생기다	24	가볍다	10		
38	가지다	23	거대하다	10		
39	사랑하다	22	새롭다	10		
40	그리다	20	작다	10		
41	내다	20	크다	10		
42	내리다	20	덥다	9		
43	만들다	20	밝다	9		
44	쉬다	20	우습다	9		
45	나가다	19	바쁘다	8		
46	돌아오다	19	아깝다	8		
47	자다	17	하얗다	8		
48	사다	17	넓다	7		
49	들어오다	17	북다	7		
50	없다	17	시시하다	7		

용언을 분석해 본 결과, 동사는 5,283개, 형용사는 2,015개, 보조용언은 1,033개가 사용되었다. 먼저 동사를 사용 빈도 순위로 정리해 보면, ‘하다, 되다, 있다, 보다, 가다, 오다, 알다, 모르다, 생각하다, 위하다, 쓰다, 나오다, 주다, 살다, 앓다, 나다, 보이다, 울리다, 떨어지다, 서다, 찾다, 죽다, 마시다, 돌다, 잊어버리다, 부르다, 앓다, 웃다, 대하다, 울다’ 순으로 나타났다. ‘하다, 보다, 가다, 오다, 나오다, 주다, 살다, 앓다, 서다, 찾다, 마시다, 돌다, 부르다’ 등 행위를 나타내는 표현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었고, ‘알다, 모르다, 생각하다, 잊어버리다’ 등의 인지 동사, ‘웃다, 울다, 사랑하다’ 등의 감정 동사 등도 나타났다.

형용사는 ‘없다, 아니다, 있다, 같다, 좋다, 그렇다, 무섭다, 무수하다, 어리다, 많다, 어쩔다, 길다, 이렇다, 푸르다, 더럽다, 아프다, 어렵다, 젊다, 가깝다, 노랗다, 싫다, 이러하다, 다르다, 멀다, 무겁다, 시원하다, 아름답다, 조용하다, 검다, 그러하다’ 등의 순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

형용사의 사용 양상을 보면, 부정 표현 ‘없다, 아니다’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없다, 있다’처럼 존재 표현이 높은 빈도를 보였고, ‘좋다, 젊다, 시원하다, 아름답다, 조용하다, 새롭다, 밝다’ 등의 긍정적인 표현, ‘무섭다, 더럽다, 아프다, 어렵다, 싫다, 무겁다, 불쌍하다, 서

럽다, 어둡다, 시시하다' 등의 부정적인 표현들도 보였다. '길다, 가깝다, 멀다, 작다, 크다, 넓다' 등의 공간 지각어와 '푸르다, 노랗다, 검다, 희다, 하얗다, 붉다' 등의 색채어도 사용되었다.

보조용언은 '않다, 있다, 지다, 하다, 가다, 보다, 주다, 말다, 오다, 놓다, 못하다, 버리다, 되다, 싶다, 두다, 나가다, 만하다, 빠지다, 가지다, 나다, 달다, 드리다, 듯하다, 보이다, 아니하다, 들다, 뻗하다, 죽다, 착하다'의 순서로 나타났다. 보조용언도 형용사와 마찬가지로 부정어 '않다'가 높은 빈도를 보였고, 진행이나 지속을 나타내는 '있다'도 높게 나타났다.

김수영 시는 용언 외에도 부정 표현이 많이 사용되는데, 이는 삶이나 세상에 대한 비극적 전망,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⁷⁾

3. 수식언의 어휘 분포

수식언의 어휘 수는 373개로 전체 어휘 수의 7%를 차지하였다. 사용 빈도는 2,110개로 전체 어휘 사용 빈도 중에 6.48%의 분포를 보였다. 수식언에 속하는 어휘들은 부사와 관형사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수식언을 부사, 관형사별로 고빈도 50순위까지 제시하면 <표 3>과 같다.

수식언을 분석해 본 결과, 부사는 1,474개, 관형사는 636개가 사용되었다. 고빈도 수식언 목록에서, 부사는 '더, 안, 또, 그러나, 그리고, 아니, 없이, 다, 너무나, 다시, 같이, 너무, 못, 아직, 이제, 그래도, 가장, 함께, 바로, 이미, 더욱, 아무리, 어서, 왜, 그러니까, 모두, 비로소, 빨리, 자꾸, 좀' 등의 순서를 보였다. 부사도 다른 품사와 마찬가지로 '안, 아니, 없이' 등

7) 김수영 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부정어는 '않다'이다. 107편에 등장하며 수치상으로는 김수영 시편의 절반을 넘는다. 이처럼 '아니' 계열의 부정어는 부정 표현의 기본적인 요소이자 김수영의 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부정어이다. '없다'도 172회 등장하는 시어이다. '없다' 계열의 부정어는 대상의 부재를 뜻하면서 김수영 시에 두 번째로 많이 등장하는 부정어이다. '말다/못하다' 계열의 부정어도 그다음으로 많이 등장하는 부정어로 행위의 중단이나 수준 미달을 뜻한다.

의 부정 표현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더, 다, 너무나, 너무, 더욱’ 등의 정도 부사도 빈번히 사용되고 있었다. 접속부사는 ‘그러나, 그리고, 그래도,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그리하여’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그러나, 그리고’의 빈도가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표 3> 고빈도 수식언 목록

순위	부사		관형사		순위	부사		관형사	
	형태	빈도	형태	빈도		형태	빈도	형태	빈도
1	더	108	이	142	26	모두	10	모오든	3
2	안	78	그	102	27	비로소	10	스무	3
3	또	74	한	65	28	빨리	10	여러	3
4	그러나	54	내	43	29	자꾸	10	일	2
5	그리고	45	모든	43	30	좀	10	10만	2
6	아니	44	어느	23	31	반드시	9	5만	2
7	없이	43	이런	22	32	지금	9	여섯	2
8	다	34	저	21	33	혹은	9	열아홉	2
9	너무나	32	두	18	34	구태여	8	열여섯	2
10	다시	30	몇	11	35	멀리	8	열일곱	2
11	같이	26	새	11	36	언제나	8	옛	2
12	너무	22	네	9	37	얼마나	8	첫	2
13	못	17	무슨	9	38	영원히	8	헌	2
14	아직	17	그런	8	39	조금	8	구천육백삼십오만	1
15	이제	16	오랜	8	40	차라리	8	기천	1
16	그래도	16	단	6	41	깨끗이	7	넉	1
17	가장	15	아무	6	42	꼭	7	만	1
18	함께	14	3만	5	43	먼저	7	맨	1
19	바로	13	다른	5	44	벌써	7	몇몇	1
20	이미	13	억만	5	45	빵	7	몇천	1
21	더욱	11	온갖	5	46	오히려	7	바른	1
22	아무리	11	요	5	47	훨씬	7	반	1
23	어서	11	어떤	4	48	그래서	7	백만	1
24	왜	11	온	4	49	그런데	7	서른아홉	1
25	그러니까	11	백	3	50	가만히	6	석	1

다음으로 관형사는 ‘이, 그, 한, 내, 모든, 어느, 이런, 저, 두, 몇, 새, 네, 무슨, 그런, 오랜, 단, 아무, 3만, 다른, 억만, 온갖, 요, 어떤, 온, 백, 모오든, 스무, 여러, 일, 10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관형사는 ‘이, 그, 이런, 저’ 등의 지시관형사가 높은 빈도로 쓰였다. ‘한, 두, 스무, 10만, 5만, 여섯, 열아홉, 열여섯, 열일곱, 서른아홉’ 등의 수관형사도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4. 관계언의 어휘 분포

관계언의 어휘 수는 103개로 전체 어휘의 1.93%를 나타냈다. 반면에, 그 사용 빈도는 9,776개로 전체 사용 빈도의 30.03%의 분포를 보였다. 체언(12,248개, 37.62%) 다음으로 높은 사용 빈도이다.

관계언은 크게 격조사, 접속조사, 보조사로 구분하였고, 격조사는 다시 주격조사, 보격조사, 관형격조사, 목적격조사, 부사격조사, 호격조사, 인용격조사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관계언 목록을 빈도순으로 50순위까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⁸⁾

<표 4> 고빈도 관계언 목록

순위	격조사(접속조사)			보조사	
	형태	유형	빈도	형태	빈도
1	의	관형격	1470	는	814
2	을	목적격	1137	도	649
3	에	부사격	877	은	518
4	이	주격	865	만	121
5	를	목적격	590	까지	69
6	가	주격	578	부터	25
7	에서	부사격	264	ㄴ	23
8	으로	부사격	176	요	18
9	과	접속	152	뿐	15
10	처럼	부사격	137	나	14

8) 접속조사는 격조사에 포함하여 제시하였다.

11	보다	부사격	119	라도	14
12	와	접속	118	이란	14
13	로	부사격	106	이야	14
14	이여	호격	101	이나	13
15	에게	부사격	99	밖에	12
16	이	보격	68	야	12
17	여	호격	66	마다	11
18	같이	부사격	58	란	10
19	와	부사격	57	마지	9
20	야	호격	46	이라도	7
21	과	부사격	42	조차	6
22	가	보격	34	든	5
23	이떠	접속	20	일랑	3
24	이라고	인용격	20	이리든지	2
25	한테	부사격	15	이야말로	2
26	나	접속	13	대로	2
27	아	호격	13	든지	1
28	이나	접속	13	들	1
29	하고	부사격	12	야말로	1
30	에서부터	부사격	11	이든지	1
31	서	주격	9	이라고	1
32	이고	접속	8		
33	라고	인용격	8		
34	르	목적격	6		
35	만큼	부사격	6		
36	하고	접속	6		
37	에다	부사격	5		
38	더러	부사격	3		
39	한테서	부사격	3		
40	고	인용격	2		
41	니	접속	2		
42	로서	부사격	2		
43	만치	부사격	2		
44	에게서	부사격	2		
45	며	접속	1		
46	랑	부사격	1		
47	로써	부사격	1		
48	으로부터	부사격	1		
49	라	인용격	1		
50	으로서	부사격	1		

격조사(접속조사)는 총 7,371개가 사용되었고, ‘의, 을, 에, 이, 를, 가, 에서, 으로, 과, 처럼, 보다, 와, 로, 이여, 에게, 이, 여, 같이, 와, 야, 과, 가, 이며, 이라고, 한테, 나, 아, 이나, 하고, 에서부터’ 등의 순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 시의 표현에서 관형격조사 ‘의’의 빈도가 높게 사용된 점이 특징적이다.

목적격조사는 ‘을, 를’ 모두 높은 순위에 있고, 부사격조사는 ‘에, 에서, 으로, 처럼, 보다, 로, 에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격조사는 ‘이, 가, 호격조사는 ‘이여, 야, 인용격조사는 ‘이라고, 라고’, 접속조사는 ‘과, 와’ 등이 사용되었다.

보조사는 총 2,405개가 사용되었다. 어휘는 ‘는, 도, 은, 만, 까지, 부터, 나, 요, 뿐, 나, 라도, 이란, 이야, 이나, 밖에, 야, 마다, 란, 마저, 이라도, 조차, 든, 일랑, 이라든지, 이야말로, 대로, 든지, 들, 야말로, 이든지, 이라고’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조사는 특히 ‘는, 은과 ‘도’의 사용 빈도가 월등히 높았다.

5. 독립언의 어휘 분포

독립언은 총 31개의 어휘 수가 사용되었고, 0.58%의 비율을 보였다. 사용 빈도는 89개로 전체 사용 빈도의 0.27%를 나타냈다. 독립언 목록을 제시하면 <표 5>와 같다.

독립언은 ‘아아, 오오, 오, 그래, 야, 여보, 하, 아냐, 구, 네, 아, 아니, 여보세요, 허허, 구구, 구구구, 깃땀, 아암, 아이구, 암, 야아, 예, 에이, 여보게나, 오냐, 으흐흐, 응, 응아, 응응, 하하, 하하하가 나타났다. ‘아아, 오오, 오’ 등의 감탄 표현의 사용 빈도가 가장 높았고, ‘그래, 네, 오냐, 응, 응응’ 등의 대답 표현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야, 여보, 여보세요, 여보게나’ 등의 부름 표현도 사용되고 있다.

<표 5> 고빈도 독립언 목록

순위	형태	빈도	순위	형태	빈도
1	아아	22	17	갓뻘	1
2	오오	9	18	아암	1
3	오	6	19	아이구	1
4	그래	5	20	암	1
5	야	5	21	야아	1
6	여보	5	22	에	1
7	하	5	23	에이	1
8	아나	3	24	여보게나	1
9	구	2	25	오냐	1
10	네	2	26	으흐흐	1
11	아	2	27	응	1
12	아니	2	28	응아	1
13	여보세요	2	29	응응	1
14	허허	2	30	하하	1
15	구구	1	31	하하하	1
16	구구구	1			

Ⅲ. 김수영 시의 주요 어휘 ‘나’의 네트워크

지금까지 살펴본 어휘들을 종합하여 고빈도 50순위까지 제시해 보이면 <표 6>과 같다.

김수영의 시에서 보면, 조사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다.⁹⁾ 조사를 제외하고 그다음으로 고빈도를 보이는 어휘가 대명사 ‘나’이다. 이를 통하여 김수영의 시가 고백적 성향과 자기 반성적 면모를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체언은 다른 품사보다 대상에 대한 인식이나 개념을 보다 잘 드

9) 조사 ‘의’가 1470개, ‘을’이 1137개, ‘에’가 877개, ‘아’가 865개, ‘는’이 814개, ‘도’가 649개 사용되었다. 그다음으로 대명사 ‘나’가 612개로 나타났다.

러내는 어휘 범주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김수영의 시어뿐 아니라 김수영의 삶이나 의식까지 고찰해 보기 위하여, 김수영 자신을 지칭하는 ‘나’를 대상어로 선정하고, 이들의 공기어를 품사별로 추출하여 네트워크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¹⁰⁾

<표 6> 고빈도 어휘 목록

순위	어휘	빈도	순위	어휘	빈도
1	의	1470	26	가다	136
2	을	1137	27	그	133
3	에	877	28	만	121
4	이	865	29	보다	119
5	는	814	30	와	118
6	도	649	31	우리	117
7	나	612	32	내	116
8	를	590	33	사람	114
9	가	578	34	지다	110
10	은	518	35	더	108
11	것	512	36	로	106
12	하다	369	37	그	102
13	에서	264	38	이어	101
14	너	238	39	오다	100
15	않다	225	40	에게	99
16	있다	224	41	때	96
17	되다	194	42	일	96
18	있다	189	43	있다	94
19	으로	176	44	소리	89
20	없다	172	45	같다	87
21	아니다	164	46	수	84
22	과	152	47	위	81
23	이	142	48	알다	80
24	보다	137	49	안	78
25	처럼	137	50	눈	75

10) 공기(co-occurrence)는 두 단어가 같은 문맥에서 함께 나타나는 현상을 포괄하는 용어이다. 따라서 공기어란 같은 문맥 안에서 함께 나타나 서로 밀접한 의미 관계를 갖는 단어를 말한다. 이 연구에서는 시 텍스트를 분석하므로 시행을 중심으로 공기어를 추출한다. 시인은 일반적인 언어 단위(단어, 어절, 문장 등)라 할지라도 의도적으로 시행을 나누어 표현하기도 한다. 따라서 시행은 시인의 의식을 가장 잘 드러내 주는 언어 단위라고 할 수 있다.

대상어와 공기어의 관계 척도는 t -점수로 측정할 수 있다.¹¹⁾ 여기서 t -점수는 대상어와 공기어 사이의 연결 강도를 나타내며, 실제 관측 빈도(Observed Frequency)와 예상 빈도(Expected Frequency)의 차이를 기준으로 하여 측정된 값이다.¹²⁾ 관측 빈도는 시행에서 대상어와 함께 나오는 공기어의 빈도를 측정하여 구하였다. 예상 빈도는 전체 코퍼스의 빈도, 전체 코퍼스에서 공기어의 빈도, 그리고 대상어가 포함된 시행의 코퍼스 빈도로 측정하였다. 대상어와 공기어 사이의 각각의 t -점수를 구한 후에 파이엑(Pajek)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네트워크를 그렸다.¹³⁾ 이를 체언, 용언, 수식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관계언은 '나와의 관계성을 보여주기보다는 각 체언 뒤에 사용되어 시어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고, 독립언은 사용 빈도가 적어 '나와 직접적인 공기 관계를 보이고 있지 않으므로 분석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1. 대상어 '나'와 공기 관계에 있는 체언

먼저 대상어 '나와 공기 관계에 있는 체언의 연결 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t -점수를 구하였다. t -점수가 높은 순으로 50개까지의 어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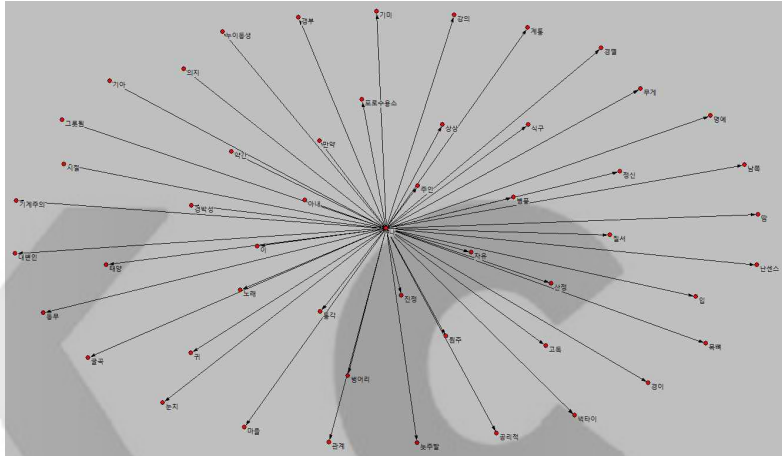
-
- 11) 공기어의 척도로 t -점수(t -score), 상호 정보(MI), LMI(lexicographers Mutual Information), 카이제곱 통계량 4가지가 있다. 이 중에 t -점수 이외의 통계 값은 공기 관계를 분석하는 데 몇 가지 한계가 있어서 실제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t -점수 통계 값을 활용한다. t -점수는 단순히 코퍼스에서 절대적인 빈도수가 높은 단어가 공기 관계가 높은 단어로 해석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 12) 대상어와 공기어의 관계 척도는 같은 문맥 내에서 두 단어가 우연히 함께 나타날 빈도보다 실제로 함께 나타나는 빈도가 높을수록 강한 공기 관계가 성립한다는 가정을 토대로 측정한다.
 - 13) 대상어와 공기어가 형성하는 네트워크는 단어의 네트워크이지만, 그것은 개념 내지는 사물의 네트워크로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김수영이 사용한 시어에서 대상어와 공기어가 이루는 네트워크는 김수영의 시 의식 근간을 이루는 개념의 네트워크라 할 수 있다.

<표 7> 대상어 '나'의 공기어(체언)와 t-점수

순위	공기어	t-점수	순위	공기어	t-점수
1	주인	1.61391	26	의지	0.93645
2	자유	1.47832	27	강의	0.90348
3	아내	1.45908	28	갱부	0.90348
4	진정	1.34596	29	경멸	0.90348
5	병풍	1.34196	30	경이	0.90348
6	이	1.32434	31	계통	0.90348
7	만약	1.27771	32	공리적	0.90348
8	통각	1.27771	33	관계	0.90348
9	노래	1.24325	34	굴곡	0.90348
10	상상	1.23050	35	그릇됨	0.90348
11	경박성	1.20946	36	기계주의	0.90348
12	산정	1.20946	37	기미	0.90348
13	약간	1.20946	38	기아	0.90348
14	원주	1.20946	39	난센스	0.90348
15	포로수용소	1.17478	40	남쪽	0.90348
16	식구	1.14121	41	넥타이	0.90348
17	질서	1.14121	42	늦주발	0.90348
18	정신	1.08304	43	누이동생	0.90348
19	고독	1.07295	44	눈치	0.90348
20	병어리	1.07295	45	대변인	0.90348
21	태양	1.00760	46	동무	0.90348
22	귀	1.00470	47	땀	0.90348
23	입	0.95187	48	마을	0.90348
24	무계	0.93645	49	명예	0.90348
25	시절	0.93645	50	목뻐	0.90348

대상어 '나'와 공기 관계에 있는 체언의 t-점수를 분석해 본 결과, 연결 강도가 높은 어휘는 '주인, 자유, 아내, 진정, 병풍, 이, 만약, 통각, 노래, 상상, 경박성, 산정, 약간, 원주, 포로수용소, 식구, 질서, 정신, 고독, 병어리, 태양, 귀, 입, 무계, 시절, 의지, 강의, 갱부, 경멸, 경이, 계통, 공리적, 관계, 굴곡, 그릇됨, 기계주의, 기미, 기아, 난센스, 남쪽, 넥타이, 늦주발, 누이동생, 눈치, 대변인, 동무, 땀, 마을, 명예, 목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t-점수는 점수 자체보다는 여러 단어들 사이의 연어성의 순서가 중요하다. 따라서 t-점수를 구한 값 자체보다 측정값에 따른 순서가 더 중요하다.

며, t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을수록 대상어와 공기어의 연결 강도가 센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t -점수가 높은 순으로 50순위까지 네트워크를 그리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대상어 ‘나’의 공기어(체언) 네트워크

‘나’는 ‘자유’와 연결 강도가 높는데, 이는 김수영 자신의 자유에 대한 갈망이 강하게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인, 아내와 같이 특정 대상과 긴밀한 의미 관계를 보인다. ‘주인’은 ‘집 주인, 땅 주인, 밭주인, 피아노 주인, 설령타집 돼지 같은 주인, 주인 여자’ 등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부정적인 대상으로 묘사되고 있다. 김수영 시에서는 ‘아내와 더불어 ‘여편내’도 등장한다. 시 속에서 ‘아내’는 일상 속에 놓여 있는 현실 그 자체이다. 이때 김수영은 그 대상에게 어떠한 가치 판단도 하지 않는다. 다만 아내를 통해 스스로를 들여다본다. 반면에 ‘여편내’라는 시어를 선택 하여 완전한 타자일 수 없는 ‘자신의 아내’를 약간은 부정적으로 바라봄으로써 그 시선이 자기 자신을 향하도록 하는 장치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더 나아가 비판하고 부정해야 할 현실이나 세계 그 자체를 상징하기도 한다.

2. 대상어 '나'와 공기 관계에 있는 용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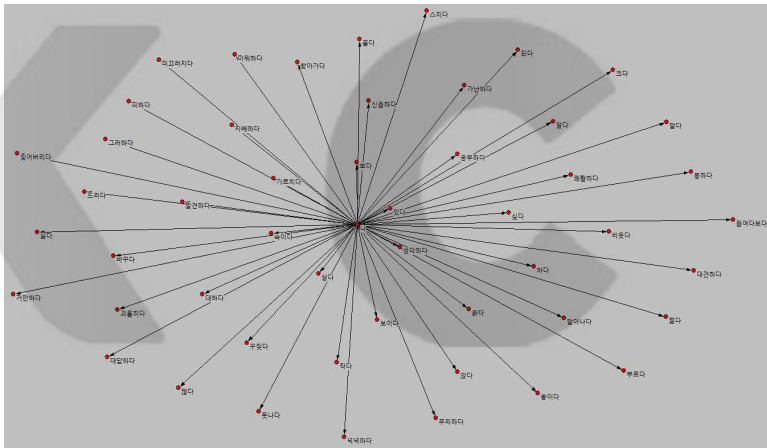
다음으로 대상어 '나'와 공기 관계에 있는 용언의 연결 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t -점수를 구하였다. t -점수가 높은 순으로 50개까지의 어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8> 대상어 '나'의 공기어(용언)와 t -점수

순위	공기어	t -점수	순위	공기어	t -점수
1	있다	4.63795	26	드리다	1.39769
2	생각하다	3.44737	27	찾아가다	1.39769
3	속이다	2.28093	28	그려하다	1.37260
4	살다	2.24025	29	미워하다	1.34596
5	보다	2.15895	30	묻다	1.34196
6	가르치다	2.01603	31	피하다	1.34196
7	공부하다	1.80695	32	싫다	1.32434
8	싶다	1.80441	33	되다	1.29524
9	보이다	1.72769	34	많다	1.28641
10	늑다	1.67491	35	놓이다	1.28623
11	하다	1.66353	36	대견하다	1.27771
12	발견하다	1.66217	37	대답하다	1.27771
13	대하다	1.58777	38	못나다	1.27771
14	신음하다	1.56487	39	부리하다	1.27771
15	지배하다	1.56487	40	미끄러지다	1.27771
16	쾌활하다	1.56487	41	봉하다	1.27771
17	작다	1.51739	42	젊다	1.27608
18	꾸짖다	1.50914	43	말다	1.25864
19	비웃다	1.50914	44	부르다	1.22793
20	달아나다	1.46913	45	잊어버리다	1.22793
21	알다	1.46391	46	크다	1.22782
22	가난하다	1.45341	47	거만하다	1.20946
23	바꾸다	1.45341	48	넉넉하다	1.20946
24	없다	1.42347	49	들여다보다	1.20946
25	괴롭히다	1.39769	50	스치다	1.20946

대상어 '나'와 관련된 용언의 t -점수를 분석해 본 결과, 연결 강도가 높은 어휘는 '있다, 생각하다, 속이다, 살다, 보다, 가르치다, 공부하다, 싫다,

보이다, 늙다, 하다, 발견하다, 대하다, 신음하다, 지배하다, 쾌활하다, 작다, 꾸짖다, 비웃다, 달아나다, 알다, 가난하다, 바꾸다, 앓다, 괴롭히다, 드리다, 찾아가다, 그러하다, 미워하다, 묻다, 피하다, 싫다, 되다, 많다, 놓이다, 대견하다, 대답하다, 못나다, 무리하다, 미끄러지다, 봉하다, 젊다, 말다, 부르다, 잊어버리다, 크다, 거만하다, 넉넉하다, 들여다보다, 스치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t -점수가 높은 순으로 50순위까지 네트워크를 그리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대상어 ‘나’의 공기어(용언) 네트워크

대상어 ‘나’와 공기 관계에 있는 용언 중에서 상태를 나타내는 어휘를 살펴보면, ‘늙다, 작다, 가난하다, 싫다, 못나다, 거만하다’ 등의 부정적인 시어들이 많다. ‘속이다, 보이다, 괴롭히다, 놓이다’ 등의 피사동 표현도 나타나는데, 피사동 표현은 ‘나는 나를 속이고 역사까지 속이고’, ‘오늘도 또 나를 이렇게 괴롭힌다’처럼 현실을 극복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에 절망하거나 괴로워하는 시적 화자의 심정이 드러난다. 또한 ‘그대들 어린 학도들과 나 사이에 놓여 있는, 나의 정신이 순간적으로 들렸다 놓인다, 영원히 나 자신을 고쳐가야 할 운명과 사명에 놓여 있는’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고 극복해야 할 운명임을 드러낸다. 김수영 시는 ‘보다, 하다, 알다’ 등의 행위 동사에 명령형 어미도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화자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가 드러난다.

이처럼 김수영은 시적 화자인 ‘나’를 통하여 현재의 삶이나 극복할 수 없는 암담하고 절망적인 현실을 상태 동사로 표현하고, 나의 의지와 앞으로의 다짐을 행위 동사로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3. 대상어 ‘나’와 공기 관계에 있는 수식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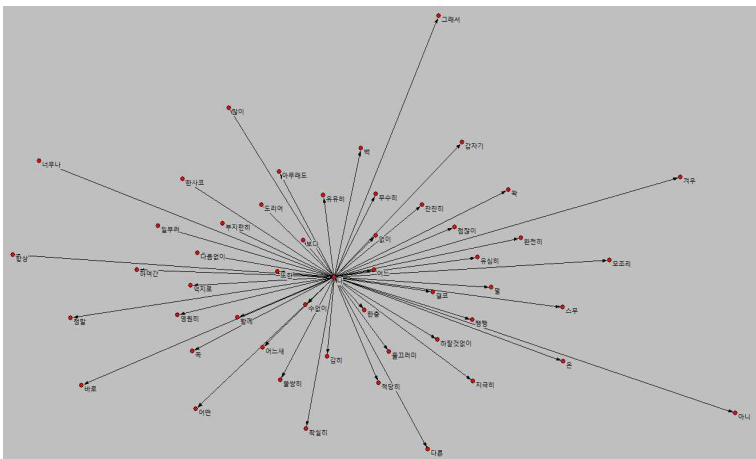
대상어 ‘나’와 공기 관계에 있는 수식언의 연결 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t -점수를 구하였다. t -점수가 높은 순으로 50개까지의 어휘를 제시하면 <표 9>와 같다.

<표 9> 대상어 ‘나’의 공기어(수식언)와 t -점수

순위	공기어	t -점수	순위	공기어	t -점수
1	어느	1.54317	26	불쌍히	0.80695
2	또한	1.28623	27	아무래도	0.80695
3	수없이	1.27771	28	완전히	0.80695
4	한층	1.20946	29	일부러	0.80695
5	보다	1.14121	30	적당히	0.80695
6	없이	1.07702	31	하여간	0.80695
7	결코	1.00470	32	꼭	0.71043
8	함께	0.95187	33	백	0.71043
9	감히	0.90348	34	스무	0.71043
10	더름없이	0.90348	35	지극히	0.71043
11	덜	0.90348	36	한사코	0.71043
12	도리어	0.90348	37	갑자기	0.61391
13	무수히	0.90348	38	모조리	0.61391
14	물끄러미	0.90348	39	어떤	0.61391
15	부지런히	0.90348	40	온	0.61391
16	어느새	0.90348	41	정말	0.61391
17	역지로	0.90348	42	확실히	0.61391

18	유심히	0.90348	43	바로	0.52694
19	유유히	0.90348	44	다른	0.51739
20	점잖이	0.90348	45	많이	0.51739
21	쟁쟁	0.90348	46	항상	0.51739
22	찬찬히	0.90348	47	너무나	0.45564
23	하잘것없이	0.90348	48	겨우	0.42086
24	영원히	0.86820	49	아니	0.33676
25	꼭	0.80695	50	그래서	0.32434

대상어 ‘나와 공기 관계에 있는 수식어의 t-점수를 분석해 본 결과, 연결 강도가 높은 어휘는 ‘어느, 또한, 수없이, 한층, 보다, 없이, 결코, 함께, 감히, 다름없이, 덜, 도리어, 무수히, 물끄러미, 부지런히, 어느새, 억지로, 유심히, 유유히, 점잖이, 쟁쟁, 찬찬히, 하잘것없이, 영원히, 꼭, 불쌍히, 아무래도, 완전히, 일부러, 적당히, 하여간, 꼭, 백, 스무, 지극히, 한사코, 갑자기, 모조리, 어떤, 온, 정말, 확실히, 바로, 다른, 많이, 항상, 너무나, 겨우, 아니, 그래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t-점수가 높은 순으로 50순위 까지 네트워크를 그리면 다음과 같다.



[그림 3] 대상어 ‘나’의 공기어(수식어) 네트워크

대상어 ‘나와 공기 관계에 있는 수식언을 살펴보면, ‘없이, 아나’ 등의 부정적 표현이 들어간 어휘가 많다. 이 어휘들은 ‘나의 마음에서 수없이 떨어져 내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무 미련도 없이, 나는 눈이 먼 암소나 다름없이, 나야 늙어가는 몸 위에 하잘것없이 앉아 있으면 고만이고’처럼 체념하거나 현 상대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작가의 태도가 드러난다. 시인의 의지가 드러나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어휘도 ‘나는 확실히 하루살이에게 졌다고 생각한다, 나도 감히 상상을 못하는 거대한 뿌리에 비하면’처럼 부정적인 표현들과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대상어 ‘나와 연결 관계가 높은 수식언은 자신의 처지나 상태를 나타내거나 체념하는 태도를 표현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IV. 결론

지금까지 김수영 시에 나타난 어휘를 품사별 고빈도 시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시어의 관계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대상어 ‘나와 공기 관계에 있는 어휘를 네트워크로 분석해 보았다.

김수영 시에서 분석된 어휘의 수는 총 5,328개였다. 체언은 3,231개(60.64%), 용언은 1,590개(29.84%), 수식언은 373개(7.00%), 관계언은 103개(1.93%), 독립언은 31개(0.58%)였다. 김수영의 시어는 총 32,554개가 사용되었다. 체언은 12,248개(37.62%), 관계언은 9,776개(30.03%), 용언은 8,331개(25.59%), 수식언은 2,110개(6.48%), 독립언은 89개(0.27%)가 사용되었다.

체언에서는 ‘나’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나는’ ‘주인, 아내’와 같이 삼인칭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특정 대상과 긴밀한 의미 관계를 보였다. 또한 ‘자유’와 연결 강도가 높는데, 이는 김수영이 살아온 삶이나 그 시대

의 사회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김수영 자신의 자유에 대한 갈망이 강하게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민주당, 자유당, 38선, 4.19, 1.4후퇴, 6.25, 8.15’ 등이 다양하게 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김수영이 현실 참여에 대한 의지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용언에서는 부정 표현 ‘않다, 없다, 아니다’ 등이 높은 빈도를 보였다. 김수영은 시적 화자인 ‘나’를 통하여 현재의 삶이나 극복할 수 없는 암담하고 절망적인 현실을 상태 동사로 표현하고, 나의 의지와 앞으로의 다짐을 행위 동사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김수영 시는 여러 품사에서 부정 표현이 많이 사용되는데, 이는 삶이나 세상에 대한 비극적 전망,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김수영 시의 또 다른 특징은, 관형격조사 ‘의’의 사용 빈도가 매우 높다는 점이다. 이는 김수영의 시가 다른 시보다 산문성과 서술적 요소가 두드러지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김수영은 현실을 직시하고 모순된 세계를 정직하게 보여주기 위하여,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언어보다는 일상적인 어휘를 구사하고 있었다. 일상어에 담긴 자기 고백적 성향과 자기 반성적 모습으로 시인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 이 논문은 2017년 2월 11일에 접수하여 2017년 3월 13일에 논문 심사를 완료하고 2017년 3월 13일에 게재를 확정함.

참고문헌

- 강범모 외(2004), 『코퍼스와 어휘 데이터베이스』, 월인.
- 강범모(2010), “공기 명사에 기초한 의미/개념 연관성의 네트워크 구성”, 『한국어 의미학』 32, 한국어의미학회, pp.1-28.
- 강신주(2012), 『김수영을 위하여』, 천년의상상.
- 강영기(2005), 『(한국 현대시의) 대비적 인식: 김수영과 김춘수』, 푸른사상.
- 강웅식(2003), “김수영 시론 연구”, 『상허학보』 11, 상허학회, pp.163-197.
- 강웅식(2012), 『김수영 신화의 이면』, 청동거울.
- 국립국어원(2002), 『현대국어 사용빈도 조사』, 국립국어원.
- 김병선 외(2007), 『한국 현대시어 빈도 사전』, 한국문화사.
- 김병선(2004), “한국 현대시 데이터베이스의 구성과 그 활용방안”, 『한국언어문학』 53, 한국어언어학회, pp.513-535.
- 김선학(1986), “한국 전후시의 일고찰”, 『논문집』 5, 동국대학교, pp.23-38.
- 김수영(2013), 『김수영 전집-시』, 민음사.
- 김용학(2013), 『사회 연결망 분석』, 박영사.
- 김일환 외(2011), “공기 관계 네트워크를 이용한 감점명사의 사용 양상 분석”, 『한국어학』 49, 한국어학회, pp.119-148.
- 김일환(2011), “공기어 네트워크의 변화 양상”, 『한말연구』 29, 한말연구학회, pp.35-70.
- 김일환·정유진(2011), “공기어 네트워크와 사회 계층 변화”, 한국사전학회 제19차 전국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사전학회, pp.53-68.
- 김중훈(2009), “김수영 시의 ‘부정어’ 연구”, 『정신문화연구』 116호, 한국학중앙연구원, pp.333-357.
- 김중훈(2012), “김수영 시에 나타난 ‘얼굴의 의미’”, 『비평문학』 44, 한국비평문학회, pp.67-94.
- 김중훈(2013), 『김수영 시어 연구』, 서정시학.
- 김철준·임형재(2009), 『이용악 시의 시어 통계와 분석』, 역락.
- 김혜영 외(2011), “사건명사의 공기어 네트워크 구성과 분석”, 『언어와 언어학』 50,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 종합연구센터 언어연구소, pp.81-106.
- 남기택(2009), 『김수영과 신동엽』, 청운.
- 노대규(1999), 『시의 언어학적 분석』, 국학자료원.
- 도재학·강범모(2012), “관련어 네트워크를 활용한 유의어 분석”, 『한국어 의미학』 37, 한국어 의미학회, pp.131-157.

- 문한별·김일환(2011), “김남천 소설의 어휘 사용 양상에 대한 계량적 연구”, 『현대소설연구』 48, 한국현대소설학회, pp.377-402.
- 박인환 외(1961), 『한국전후문체시집』, 신구문화사.
- 박지해(2013), “김수영 시에 나타나는 ‘아내’와 ‘여편네’의 정치성”, 『한민족어문학』 65, 한민족어문학회, pp.707-739.
- 손동원(2002), 『사회 네트워크 분석』, 경문사.
- 시정곤(2006), 『응용국어학의 탐구』, 월인.
- 신우봉 외(2010), “신문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공간명사의 사용 양상과 네트워크 분석”, 『텍스트언어학』 29, 텍스트언어학회, pp.221-250.
- 신현숙(1994), “시에 나타난 담화 유형”, 『선칭어문』 22, 선칭어문학회, pp.351-360.
- 여태천(2004), “김수영 시의 장소적 특성 연구”, 『민족문화연구』 41, 민족문화연구원, pp.347-388.
- 오윤정(2005), “‘오늘’의 상화의식과 부정의 시학”, 『한국전후문체시인연구』 2, 예림기획, pp.319-357.
- 이만식(2013), “이상 시의 어휘 사용 양상과 공기관계 네트워크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승훈(1999), “1950년대 한국 모더니즘시 연구”, 『동아시아 문화연구』 33,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pp.71-96.
- 이영제 외(2011),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명사의 사용 양상과 네트워크 분석”, 『한국어 의미학』 34, 한국어 의미학회, pp.259-294.
- 이영준 편(2009), 『김수영 육필시과 전집』, 민음사.
- 장석원(2003), “김수영 시의 ‘새로움’ 연구”, 『한국시학연구』 8, 한국시학회, pp.233-270.
- 장석원(2006), “김수영 시의 인칭대명사 연구”, 『한국시학연구』 15, 한국시학회, pp.207-237.
- 정유진·장범모(2011), “친족명사의 공기어 양상과 네트워크 분석”, 『언어학』 19, 대한언어학회, pp.209-235.
- 조성문(2012), “이상 시의 음운론적 특성 분석”, 『언어학』 20, 대한언어학회, pp.125-136.
- 조창규(2002), “소월과 영랑 시어의 계량언어학적 고찰”, 『배달말』 30, 배달말학회, pp.153-176.
- 주영중(2006), “김수영 시에 나타난 시각적 경험의 발현 양상”, 『한국근대문학연구』 13, 한국근대문학회, pp.277-312.
- 한명희(2002), 『김수영 정신분석으로 읽기』, 월인.
- 한정환 외(2004), 『유로워드넷』, 한국문화사.

황정산(2003), 『김수영』, 새미.

Manning, C. and H. Schütze.(1999), *Foundations of Statistical Natural Language Processing*.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전 은 진

전자우편 : eunjin1510@hanmail.net

<국문초록>

김수영 시에 나타난 어휘 연구

전 은 진

이 연구는 김수영 시에 나타난 어휘를 품사별 고빈도 시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시어의 관계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대상어 ‘나’와 공기 관계에 있는 어휘를 네트워크로 분석해 보았다.

김수영 시의 어휘를 분석해 본 결과, 체언에서는 ‘나’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나’는 ‘주인, 아내’와 같이 삼인칭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특정 대상과 긴밀한 의미 관계를 보였다. 또한 ‘자유’와 연결 강도가 높는데, 이는 김수영이 살아온 삶이나 그 시대의 사회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김수영 자신의 자유에 대한 갈망이 강하게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용언에서는 부정 표현 ‘않다, 없다, 아니다’ 등이 높은 빈도를 보였다. 김수영은 시적 화자인 ‘나’를 통하여 현재의 삶이나 극복할 수 없는 암담하고 절망적인 현실을 상대 동사로 표현하고, 나의 의지와 앞으로의 다짐을 행위 동사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김수영 시의 또 다른 특징은, 관형격조사 ‘의’의 사용 빈도가 높다는 점이다. 이는 김수영의 시가 다른 시보다 산문성과 서술적 요소가 두드러지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김수영은 현실을 직시하고 모순된 세계를 정직하게 보여주기 위하여,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언어보다는 일상적인 어휘를 구사하고 있었다. 일상어에 담긴 자기 고백적 성향과 자기 반성적 모습으로 시인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 **핵심어** : 김수영, 시, 어휘, 품사, 대상어, 공기어, 네트워크

<ABSTRACT>

A Study on the Word in the Poems of Kim Su-yeong

Jeon, Eun-Ji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on the word in the poems of Kim Su-yeong. Accordingly, More than 176 poems of Kim Su-yeong were build to a corpus, and frequency analysis was performed to extract words. The frequency of the entire poetic words was analyzed for each part of speech. As a result, the frequency of the personal pronoun 'na' in the poems of Kim Su-yeong was appeared highly. The personal pronoun 'na' that is the main word in his poems were selected by target words and co-occurring words of the personal pronoun 'na' were extracted. Based on the co-occurrence relation of personal pronoun 'na' and co-occurring word, a network analysis was performed. As a result, it could be analyzed on the aspect of words and the network of co-occurring words in the poems of Kim Su-yeong.

- **Key words** : Kim Su-yeong, poems, words, parts of speech, target words, co-occurring words, network